

믿음 지식 실현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기축년 정초 7 기도 회향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시 전법기도 법회

12월 29일 기축년 정초 7일 기도 입재 (1월 4일 회향)

2009년 1월 3일 토요일 성도재일 참선 용맹 정진 (저녁 8시-11시)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 2시 - 4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p>Introduction to Meditation Starting January 15, 2009-February 12, 2009 Every Thursday from 7pm-8: 30pm</p>	<p>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p>
--	---

이달의 법구경

믿음과 덕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영광스런,
보물을 지닌 것이라네.
이러한 사람 가는 곳마다
명예로운 대접 받는다네.

If a man has faith and has virtue, then he has
true glory and treasure. Wherever that man
may go, there he will be held in hono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도림법전 중정예하 신년법어 : “산빛 물빛이 心地의 법등 밝히네”

시방세계(十方世界)가 새 역사(歷史)를 맞습니다.

하늘은 새 빛을 빚어 이 땅의 어둠을 씻어내고 산빛 물빛이 한결 같이 지혜광명(智慧光明)을 이루어 사바(娑婆)의 번뇌(煩惱)를 일깨우는 심지(心地)의 법등(法燈)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온 비원(悲願)의 숨결이 오늘 아침 장강(長江)으로 열려서 비옥(肥沃)한 산하(山河)를 이루니 집집마다 향상(向上)의 가풍(家風)은 하늘 높이 드날리고 만유(萬有)는 본분소식(本分消息)을 드러내어 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온 누리는 혜일(慧日)이 충만하여 교화(教化)를 입지 않는 이가 없고 세계(世界)는 보리(菩提)가 널리 퍼져 군생(群生)이 도업(道業)을 이루니 눈앞에 다가서는 모든 장악(障嶽)은 무너지고 대지(大地) 위에 되풀이 되는 전도(顛倒)의 고통이 그칩니다.

만물(萬物)은 이택(利澤)을 베푸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사람들은 근기에 따라 무생법인(無生法忍)의 기틀을 얻으니 목인(木人)은 봉황(鳳凰)을 타고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철우(鐵牛)는 걸림 없는 법륜(法輪)을 굴러 모든 중생(衆生)을 평등케 합니다.

탐(貪)하는 이는 장애(障礙)의 풍운(風雲)이 높아 질 것이고 베푸는 자는 오늘의 화택(火宅)을 벗어나는 길을 열 것이니 치우친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偏處不逢)

현현한 가운데에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玄玄不失)

불기 2553(2009)년 원단(元旦)

더불어 사는 지구를 만들자: 기축년엔 ‘공존의 삶’ 발원...



삼라만상 깨우는 등불 되리라...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석등(국보 제 12 호) 앞에 홀로 서서, 동 터오는 새해를 맞이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 차별없이 빛을 내비춰 생명을 일깨우는 광명등이 되리라. 일심으로 발원한다.

기축년 첫 해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솟아올랐다. 지구 역사가 시작된 후 하루도 어기지 않고 떠오른 태양이지만, 새해 첫날 가슴에 담은 해의 의미는 언제나 새롭다. 부처님께서는 <불설태자쇄호경>에서 “일체의 초목을 태우거나 파괴 말고 물을 유실시키거나 대지 말며, 자르고 베지 말라.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죄 없는 중생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괴롭혀선 안된다”며 모든 생명을 자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겸손하지 못하고 끝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괴롭혀 왔다. 특히 근대 100년간 과학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지구는 파헤쳐지고 난도질 당했다. 이 결과 빙하가 녹아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기후 온난화로 지구는 점점 허약해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인간의 욕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부질없는 탐욕으로 지구의 온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누누이 지적한 ‘허망한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한 욕심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를 맞이한 지구의 오늘은 여전히 참담할 뿐이다.

그렇다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고, 인류가 함께 사는 길은 ‘공존의 지구’를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법(緣起法)을 제시하며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존재의 존엄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할 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선연(善緣)이든 악연(惡緣)이든, 지구와 인류는 헤어질 수 없는 공업중생(共業衆生)이다.

법전 중정예하는 신년법어에서 “세계는 보리(菩提)가 널리 퍼져 군생(群生)이 도업(道業)을 이룬다”고 했다. 새해 첫날 대지에 골고루 빛을 나누어 주는 태양처럼 우리들도 ‘공존의 삶’을 발원해야 하지 않을까. [불교신문]에서

발췌

牛직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새해 되길 : 소띠이야기

불교와 깊은 인연...사찰벽화의 단골 소재이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화신으로 등장하기도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다. 불기 2553년은 소의 해이다. 소띠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한 해이다.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소(丑)는 방향으로는 동북을 나타내며, 시간적으로는 새벽 1 시에서 3 시를 의미한다. 또 소는 음력 12 월을 지키는 방향신(方向神)이자 시간신(時間神)이다.

불교에서 소는 깨달음과 관계된 중요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불자들이 사찰 벽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심우도(尋牛圖)가 그 좋은 예이다. 심우도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 묘사한 그림으로 심우도(十牛圖) 또는 목우도(牧牛圖)라고도 한다. 모두 10 개의 장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와 소치는 동자가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소와 스님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본성을 찾는 첫 단계인 ‘심우(尋牛)’에서부터 본성의 자취인 발자국을 발견한 ‘견적(見跡)’, 본성을 발견한 ‘견우(見牛)’, 본성을 깨달은 ‘득우(得牛)’,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잡은 ‘목우(牧牛)’, 소를 타고 피안의 세계로 나가는 ‘기우귀가(騎牛歸家)’, ‘망우존인(忘牛存人)’, ‘인우구망(人牛俱忘)’, ‘반본환원(返本還源)’, 다시 중생세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入塵垂手)’에 이르기까지 소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특히 목우(牧牛)의 단계에서 소의 모습이 검은 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탐진치(貪瞋痴) 삼독을 지우고 자신을 다스리며 자기 마음을 유순하게 길들이는 단계임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 <중일아함경> 제 7 권 화멸품(火滅品)에는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까마귀와 돼지, 노새와 소의 비유를 들어 수행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이 까마귀와 같은 수행자인가. 그는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음식과 익혀 온갖 나쁜 짓을 행하다가 문득 스스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남에게 말한다. 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조롱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이렇다. 즉 까마귀가 배고픔에 못 이겨 고통 받다가 더러운 것을 먹고는 곧 주둥이를 닦는 것과 같다. 다른 새가 ‘이 까마귀는 더러운 것을 먹었다’고 비난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나쁜 짓을 하고 그 허물을 남에게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돼지와 같은 수행자인가. 그는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스스로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도리어 남에게 ‘나는 다섯 가지 향락을 누리는데 저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자랑한다. 비유하자면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있으면서 다른 돼지들에게 뽐내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노새와 같은 수행자인가. 그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불법을 배우되 안정되지 못하여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낸다. 위와 법도가 없고 걸음걸이와 행동거지가 모두 계율에 어긋난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이 사람은 걸모습만 수행자 같다’고 조롱한다. 그러면 그는 ‘나도 수행자다’하고 강변한다. 그것은 노새가 소떼 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일컬어 ‘나도 소다’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노새는 귀를 보아도 소가 아니고, 뿔이나 꼬리도 소와 닮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소 같은 수행자인가. 그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집을 나와 불법을 배운다. 모든 감관이 안정되어 욕경을 대하되 감관을 잘 보호한다. 그의 행동은 위와 법도가 있고 걸음걸이와 행동거지가 모두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가 오는 것을 보면 ‘잘 오시오, 친구여. 제때에 공양을 받아 모자람은 없었는지요’ 하고 인사를 한다. 마치 좋은 소가 소떼 속에 들어가 스스로 일컬어 ‘나는 소다’라고 하면 다른 소들이 털과 꼬리와 뿔과 소리가 같은 것을 알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몸을 부비고 핏아주는 것과 같다.”

소를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손과 눈을 바로 만들어 주는 일이다. 사람들 중에는 눈이 있어도 바로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바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잘못된 만든 손과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소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한다. 불교와 소와의 관계는 석가모니 부처님 태자 때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태자 때 이름인 ‘고타마 싯다르타’에서 ‘고타마’는 ‘가장 좋은 소’, ‘거룩한 소’란 의미로 부처님 당시 농경(農耕) 중심의 가치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 불사와 관련된 설화에서도 소가 자주 등장하고는 한다. 경북 문경 대승사 창건과 관련된 전설 가운데 우(牛)부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대승사 창건 당시 큰 황소가 나타나 나무와 기와를 실어 날랐다고 한다. 이 황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건축 자재를 필요한 곳에 놔두었다. 일하던 사람들은 공사가 끝나면 황소가 어떤 행동을 할까 궁금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짐을 실어 나른 뒤 황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히 여겨 사찰로 올라가 보자 그 중턱에 소가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가사히 여긴 사람들이 소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우부도이다. 대승사 오르는 길 숲 속에 있는 이 무덤은 여느 스님의 무덤처럼 평범한 부도지만 큰 비가 내리면 빛을 발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공주 갑사에서 불사를 위해 희생된 소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조성한 공우탑(功牛塔)을 만날 수 있다. 3층 석탑인 공우탑은 백제 비류왕 4년(재위 304~344년) 계룡산 갑사에 속한 암자를 건립할 때 자재를 운반하던 소가 냇물을 건너다가 죽자 그 소를 이곳에 묻고 그 냇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는 전설이 있다. 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폐허가 된 절을 다시 중창하는 과정에서도 시주길에 구해준 소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타나 불사를 마치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충북 제천 덕주사에서 이와 유사한 설화가 얹힌 우공탑(牛公塔)을 만날 수 있다.

불교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속에서도 특히 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민속이 농경문화 중심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농사의 주역인 소가 여러 풍속과 깊은 관련을 맺어 온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소는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노동력일 뿐 아니라 운송의 역할도 담당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었으며, 사람들과 가장 친숙했던 동물이었다.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부여에서 전쟁이 있을때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규원사화>에도 흰소를 잡아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나온다. 태조 이성계의 조상 이양무의 준경묘에도 그의 아들 이안사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를 때 소 100 마리 대신 흰소(白牛)를 잡아 고사지냈다는 전설이 나온다.

소를 농사에 직접 이용한것은 꽤 오래되었으나, 문헌상으로는 신라 지증왕 3년 <삼국사기> 기록이 최초이다. 또 고구려의 안악 고분벽화에는 바퀴가 달린 가마와 여물을 먹고 있는 소 그림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백제에서는 소를 순장(殉葬)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축일(上丑日)을 ‘소의 날’이라 하여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음은 물론이요, 쇠죽에 콩을 많이 넣어 영양을 도우며, 이날은 도마질도 삼갔다. 이날 농기구를 만지면 쟁기의 보습이 부러지고, 방아를 찼으면 소가 병에 걸린다고도 했다. 또 풍년을 점치는 민속의 하나로 소에게 밥과 나물을 주는데 밥을 먼저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했다. 소에 대한 배려도 각별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짚으로 짠 덕석을 입혀 주고, 봄이 오면 외양간을 먼저 깨끗이 치웠으며, 겨울이 올 때까지 보름마다 청소를 해주었다. 이슬 묻은 풀은 먹이지 않고, 늘 솔로 빗겨 신진대사를 도왔으며, 먼 길을 갈 때에는 짚으로 짠 소신을 신겨 발굽이 닳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처럼 부정 타는 것을 막기 위해지 말라고 대문에 금줄을 치기도 했다.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는 쇠죽에다 미역국을 말아주기도 했다.

불교에서나 우리 민속에서나 소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다. 희망 가득한 기축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2009년 올 한 해도 끈기와 성실의 상징인 소처럼 우직하게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길 기대한다.

입태규 기자 [불교신문 2490호 / 1월 1일자]에서 발췌

59세 초등 여학생의 44년전 꿈찾기

-미국에 계실 때 김춘엽 보살님은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불자 이셨습니다. -
10일 전남 강진군 도암초등학교 6학년 교실.

4교시 국어시간이 끝나자마자 반 아이들이 복도로 달려 나갔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먼저 앞줄에 서려고 밀치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다. 급식을 앞두고 매번 벌어지는 풍경이다. 이날 맨 앞줄에 선 학생은

김춘엽(59·여) 씨. 얼핏 보면 교장선생님인 것 같지만 김 씨는 어엿한 '6학년 여학생'이다. 김 씨는 "여자와 남자가 따로 줄을 서는데 같은 반 여학생들이 나 때문에 늦는다고 핀잔을 줘 오늘은 재빨리 뛰어 나왔다"며 웃었다.

44년 만에 다시 다니는 초등학교

김 씨는 15명의 반 아이들과 46년이나 차이가 난다. 담임인 김용택(24) 교사의 어머니뻘이다. 아이들과 담임교사는 김 씨를 '춘'이라고 부른다. 김 씨가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가운데 자를 따서 '춘'으로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44년 만에 이 학교 6학년을 다시 다니고 있다. 사연은 기구하다. 강진군 도암면이 고향인 김 씨는 1964년 졸업을 이틀 앞두고 제적을 당했다. 20여 일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오빠와 어렵게 살아가던 김 씨는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을 숨긴 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김 씨는 1973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미국시민권을 얻었다. 김 씨가 고향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배움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남편과 함께 모교를 찾아간 그는 다시 입학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내학(61) 교장은 "처음에는 농담인줄 알았다"며 "부부가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전남도교육청에 입학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뒤 재입학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반 친구들과 딱지 치는 59세 여학생

44년 만의 학교생활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 아이들이 '웬 할머니가 왔느냐'며 수군거리더군요. 아 이게 바로 '왕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로 했죠." 김 씨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딱지치기를 배웠다. 문방구에서 딱지를 사 집에서 혼자 연습한 뒤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놀이를 하며 가까워졌다. 김 씨는 "처음에는 많이 잃었지만 지금은 실력을 쌓아 우리 반에서 딱지가 가장 많다"며 책가방에서 딱지를 꺼내 보여줬다.

여학생들과는 피구나 공기놀이를 하며 어울렸다. 최가영(13) 양은 "9월에 반장선거 때 춘을 추천했는데 여학생들이 퐁퐁 뭉쳐 당선시켰다"며 "마음씨가 너무 좋고 사탕을 자주 줘 '사탕공주'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담임인 김 교사는 이 학교가 첫 발령지인 새내기 교사다. 6월 김 씨가 입학했을 때 김 교사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김 교사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청소나 봉사활동도 아이들과 똑같이 한다"며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영어 발음이 좋아 솔직히 영어수업 만큼은 부담스럽다"며 웃었다.

대학 진학해서 작가가 되는 게 꿈

7개월의 짧은 학교생활 동안 김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차례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언젠가 같은 반 남자아이가 김 씨 대신 벌을 서준 일도 있었다. 국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몰래 자기 책을 김 씨에게 주면서 조용히 교실 뒤로 나가 벌을 선 것. 김 씨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웠다"며 "지금은 그 아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속상한 일도 있었다. 강진읍에서 15분 거리인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김 씨는 초등학교 표를 끊었다가 운전사가 "왜 어른이 초등생 표를 내느냐"며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다시 어른 표를 사서 학교에 등교한 김 씨는 너무 억울해 교실에서 어린아이처럼 평평 눈물을 쏟았다. 이 사실을 안 김 교사가 버스회사에 항의를 해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 김 씨는 졸업 후 강진읍에 있는 강진여중에 진학할 예정이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입게 될 교복도 골라 뵈었다. "나이가 있으니 중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려고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가서 배움을 더 쌓아 어릴 적 꿈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원아홉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소박한 꿈이다.

강진=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동아일보 12월 11일 사회면 기사

이웃들에게 돌리는 회향의 공덕

2008년 12월 17일 중앙일보 종교 칼럼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스님
창밖에는 여름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또한 새들의 등지도 지켜 주었던 나뭇잎들도 이제 모두 떠나가고
상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겨울의 찬 바람을 맨 몸으로 막아내며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인고의 수행을 하며 서 있다.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낙엽들은 본래 왔던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썩어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그들만의 소임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이다.

열 두 달이 모이면 일년 이라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1 월이 일년의 시작이라 본다면 12 월은 일년의 끝 자락에 위치한다. 이제 2008 년 마지막 문턱에서 그 동안 쌓아놓은 공덕들을 이웃들에게 회향할 시점에 와있다.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예년에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약 100 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 하며 경제한파가 공포로 다가와 서민들 가슴속을 시리도록 해집어 파고 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상처 받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웃과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곱해지는 것인 만큼 공덕도 그만큼 커가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기도나, 범회가 끝날 때 회향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쌓아놓은 좋은 일을 한 공덕을 내가 아닌 이웃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뜻이다. 이웃들에게 나의 공덕을 돌리는 것을 자리아타(自利利他) 즉 자기 자신도 이롭고 다른 이도 이롭게 하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모든 삼라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일컫는다.

부처님께서도 “성불의 공덕을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돌리겠다” 약속 하셨다. “화엄경”에 보면 회향은 남이 허물을 내가 덮어 감싸 안아 내가 대신 받고 내가 쌓은 공덕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이익으로 돌리겠다는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 마음이다. 이와 같이 이웃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회향 공덕의 큰 마음은 대자대비심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업도 바뀌 나갈 수 있다.

우리를 주변을 돌아 보면 멋진 회향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지난달에 돌아가신 대만분인 고 왕용칭 회장은 “돈은 하늘에서 잠시 빌린 것”이란 유언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미국 월마트도 세계에서 6 번째로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인데 정작 창업자였던 샘 월튼 (Walton)은 이익금을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더 주기위해 출장 때도 직원들과 한 방을 쓰며 검소한 삶을 살다 갔다. 칠강왕 카네기는 “통장에 돈을 남기고 죽으면 치욕적 인생”이라 하며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교육과 문화 분야에 기부 했다. 정작 갑부 카네기가 사망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2500 달러 뿐이었다 한다.

이런 멋진 회향은 재산이 많다 적다 를 떠나서 무소유적인 삶의 철학과 인간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옥탑 방 보증금과 자신의 아껴 모은 전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모두 주고 떠나셨다는 할아버지도 계신다. 이 모두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낀 따뜻한 마음씨가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지금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훨훨 타서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다. 한 개의 장작개비로는 불이 붙지 않고 설사 불을 붙인다 해도 곧 꺼져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이 장작불도 장작이 서로 겹쳐지고 의지가 되어야 불이 잘 붙고 잘 탄다. 올 연말에는 주변을 돌아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욕심을 버리며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내가 아닌 이웃들에게 베푸는 뜻 깊은 시간들을 가져 보았으면 한다.

BUDDHANARA TEMPLE (佛國寺) 기축년 정초 칠일 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옵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희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 불기 2552 년 (2007 년) 12 월 29 (양력)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3 년 (2009 년) 1 월 4 일 까지 기축년 정초 칠일기도를 봉행 합니다. 기도 회향은 1 월 4 일은 기축년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에 있습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기축년 정초 칠일 기도 동참하신 동참자 신도님 명단 입니다. 지면 관계상 소식지에 주소를 올리는 것은 생략 했습니다.

- 1)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 2) 경자생 문병현, 계묘생 서운순, 경오생 문은배, 갑술생 문성민
- 3) 임인생 문병귀, 정미생 권종연, 계유생 문영배, 병자생 문준영
- 4) 기유생 문성훈, 경술생 최윤영, 임오생 문현배
- 5) 김추윤, 곤명 이양선, Anne Kim, Jenney Kim
- 6) IL-Kwon Kim (김 일권), 장혜옥
- 7) 기축생 김현웅, 계사생 김숙향, 기사생 김정아
- 8) 병오생 도광 이찬혁, 기유생 이은정, 정축생 이지민
- 9) 임진생 조남국, 무술생 현심행 김철아, 갑자생 조민우
- 10) 남전 이광엽
- 11) 정유생 이 용성, 경자생 신숙례, 계해생 이 상준, 을축생 이상민
- 12) 정유생 박 래경, 무술생 김효례, 기사생 박 으뜸, 신미생 박꽃별, 무인생 박셋별
- 13) 을사생 송 보영, 을사생 강효정, 임신생 송 채원, 계유생 송지환, 정축생 권 효영, 기사생 조순옥
- 14) 정미생 황 현식, 정미생 박계영, 을해생 황 준우, 무인생 황수연, 임오생 황준길
- 15) 기유생 조 성기, 임자생 우주화, 정축생 조 지현, 경진생 조원희
- 16) 경자생 김 홍일, 을사생 천정화, 경오생 김 동호, 임신생 김단희
- 17) 계사생 이 주형, 기해생 김명옥, 임술생 이 상엽, 갑자생 이재용, 기사생 이지선
- 18) 계묘생 한 석성, 기유생 손 보경, 을해생 한 정아, 을해생 한상윤
- 19) 경진생 김 영희, 갑신생 이희영, 무신생 김 태성, 계축생 이금주, 장남 신사생 김준협, 정해생 김준성
- 20) 청신녀 병신생 조 문석, 신유생 박 준하, 임술생 박준형
- 21) 기해생 방 성열, 이옥이, 장남 정묘생 방동현
- 22) 신사생 진 종득, 경인생 이정숙, 신해생 진 병학, 을묘생 김지영, 갑인생 진 옥진, 정축생 이동규, 청신녀 정묘생 김옥순
- 23) 기축생 이 범도, 임진생 연혜은 조화숙, 신미생 이 주홍, 을해생 이성훈, 무진생 유 복우
- 24) 정유생 김 동수, 병신생 유혜숙, 기미생 김 근만, 계해생 김경득, 경오생 이 귀녀, 계유생 전인자, 계묘생 유 해성
- 25) 계묘생 박 인환, 을사생 유현숙, 갑신생 박 민지, 계유생 안 노미
- 26) 경자생 차 용재, 기해생 유문숙, 신미생 차 상욱, 무인생 차상대
- 27) 병오생 홍 대선, 병술생 정혜주, 무인생 홍 준수
- 28) 병신생 정 순범, 경자생 정정순, 경오생 정 영환, 임신생 박 난혜
- 29) 정유생 송 명호, 기미생 이인섭
- 30) 정미생 백 유상, 신해생 류정아, 병자생 백 옥태, 경진생 백정이
- 31) 병신생 최 상인, 정유생 유연숙, 기사생 최 연정, 임신생 최연정, 갑술생 최지은
- 32) 갑오생 배제현, 무술생 최문선, 병인생 배 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 33) 임인생 송완근, 임인생 임영애, 신미생 송미경, 계유생 송주열
- 34) 무술생 황정아, 신축생 장명자, 정묘생 황규진, 신미생 황규희
- 35) 무진생 최춘자, 갑오생 허정석 (근일), 기해생 김원미, 갑자생 허윤정, 기사생 허정민
- 36) 기사생 강미자, 신축생 강용택,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경오생 강정철, 무인생 강현대
- 37) 갑오생 심용택, 정유생 능도성 한경련, 병인생 심상준, 무진생 심상완
- 38) 정유생 윤용덕, 임인생 법륜화 김인숙, 정묘생 윤혜준, 경오생 윤일환
- 39) 임자생 유행석, 을묘생 이경주, 임오생 유동원, 임술생 유하연
- 40) 임신생 김일선, 을묘생 오중민
- 41) 갑오생 유현옥, 경신생 정자영, 임술생 정태옥
- 42) 배점순, 정미생 박광수, 병오생 김효정, 을해생 박은지, 정축생 박병주
- 43) 정축생 김야모, 계묘생 손영찬, 경술생 김효진, 정축생 손명옥, 기묘생 손해림, 신사생 손명호
- 44) 기사생 김재수, Recharad Stanley, 김동희, Erica Stanley, 김수현
- 45) 경자생 민정기, 신축생 송혜숙, 계유생 민경문, 계유생 민병원, 무인생 박복미, 기사생 송택귀, 을해생 조인순
- 46) 조계사 증고등법회
- 47) 을유생 백인선, 경인생 양순복, 기미생 백진희, 임술생 백지은
- 48) 계사생 전정수, 을미생 이재임, 계해생 전현진, 병인생 전은영

- 49) 경자생 이지연, 을축생 한기을
 - 50) 병오생 윤영목, 정축생 윤주희, 경진생 윤우진
 - 51) 정유생 김상룡, 신축생 공문희, 정묘생 김명선, 무진생 김성엽
 - 52) 병신생 강영순, 경신생 이미애, 갑자생 이학진, 기사생 이진아, 갑술생 이범학
 - 53) 경자생 안대원, 무술생 김상화, 신미생 안형철, 계유생 안형태
 - 54) Lawson Robinson, Woojin Robinson, Rigel Robinson, Kentaurus Robinson, Chiron Robinson, Lawson Robinson
 - 55) 갑인생 신동화, 을묘생 이승민, 태중야기
- 성불 합시다.

법회소식 NEWS

-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 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 기축년 소띠해 가 밝았습니다. 2008 년에도 2007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에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2008 년 12 월 29 일 기도를 입재해서 기축년이 되는 2009 년 4 일 회향하는 정초 7 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2008 년은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일이 보태져서 더욱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신도님들 모두 힘들지만 기도와 정진의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의 힘으로 모든 위기들을 이겨 냈으면 합니다. 새해에 기도 올리신 모든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합니다. 정초 칠일 기도 동참 해주신 55 불자 가족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 음력 12 월 8 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52 번째 맞이하는 성도재일 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기려서 불자들은 철야 정진을 통해 더불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도 대한 불교 조계종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올해에도 참선 용맹 정진을 합니다. 참고로 성도재일은 음력 12 월 8 일 이므로 양력으로 2009 년 1 월 3 일 토요일 저녁 8 시에 정진을 시작 합니다.
- 1 월 15 일부터 2 월 12 일까지 매주 목요일 7 시부터 8 시 30 분까지 불국사 법당에서는 현지인들 중에서 불교와 참선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5 번에 걸친 강의를 준비 했습니다. “Introduction to Meditation” 은 불국사 주지스님이 1, 3, 5 번째의 강의를 담당하고 Mr. Greg Kilper 거사님이 두번째 강의를 , 미국인 혜원 법사님이 4 번째 강의를 담당 합니다. 강의 내용은 불교를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지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므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 됩니다. 동참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1 월 7 일부터 1 월 21 일까지 약 3 주 동안 중앙승가대학에 재학 하시는 해용스님께서 졸업을 앞두고 학문과 수행을 더 깊이 하시고 싶은 원력으로 가지고 불국사를 방문하십니다. 불국사 식구 모두는 스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스님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월 18 일 일요일 정기 법회때는 해용 스님께서 귀한 법문을 해 주십니다. 미국땅에 살면서 한국에서 오신 스님께 법문을 청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 감사한 일 입니다. 스님 감사 합니다.

2008 년 12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62 번 계묘생 유해성, 276 번 갑술생 임옥순, 404 번 경자생 이지연, 405 번 을축생 한기을, 558 번 평산후인 신길철 영가.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2008년 12월 한 평 불사 동참자: 갑자생 이재용, 을미생 양영애, 계사생 공덕해 김태희, 계묘생 한석성.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